



함께하는 마음 | 우리 꽃, 이는 만큼 건강해진다

# 세계적 희귀식물 모감주나무

희귀식물은 야생화 애호가들의 선망의 대상이다. 희귀식물을 찾기 위한 애호가들의 활동은 참으로 열성적이다. 그런데 희귀동식물은 단순히 희귀성을 쫓는 사람들에게만 중요한 존재가 아니다. 희귀식물은 미래의 자원으로서 활용가치가 뛰어나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보호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면 그 상대적 활용가치는 무궁무진하다. 세계 여러 나라가 생물다양성협약에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글 사진 김원학(의학전문기자)



## 조경가치 뛰어나 정원수·가로수로 각광

충남 태안 안면수목원에서 그리 많이 떨어지지 않은 방포 바닷가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하는 모감주나무 군락이 있다. 이 군락에는 해안을 따라 400~500그루의 모감주나무가 자라고 있다. 세계적인 희귀식물인 만큼 이곳을 비롯해 대부분의 우리나라 모감주나무 자생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최근에는 울진 해변, 대구 근교, 월악산, 경상남도 저도 등지에서도 집단서식지가 발견되었다. 희귀한 식물이지만 조경 가치가 뛰어나 번식을 많이 시킨 탓에 이제는 가로수나 정원수로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다. 바닷가에서 주로 자라는 특성 때문에 염해나 대기오염에도 강하고 척박한 땅에서도 잘 견디기 때문에 비교적 심을 수 있는 곳이 많다. 이 모감주나무에 노란색 꽃이 피는 6~7월이면 장관을 이룬다. 길가나 정원에 핀 모감주나무의 황금색 꽃은 마치 거대한 황금빛 등을 켜 것처럼 환호한 광경을 연출한다.

모감주나무의 영어 이름은 '골드레인트리(Golden Rain Tree)'로, 황금의 비가 쏟아지는 것 같다는 뜻을 갖고 있다. 실제로 모감주나무의 꽃이 떨어질 때면 황금빛 꽃비를 연상시킨다. 그래서 꽃이 질 때면 모감주나무의 아래 지면은 온통 노란색으로 물든다.

## 염주의 재료인 모감주나무의 씨

지방에 따라서는 모감주나무를 염주나무라고 부른다. 모감주나무의 씨가 염주의 재료로 쓰이기 때문이다. 꽃이 지고나면 세모꼴 초롱 모양의 열매가 열린다. 얇은 종이 같은 껍질이 셋으로 길게 갈라지는데, 그 안에 콩 크기의 새까만 종자 3개가 자리 잡고 있다. 윤기가 흐르는 이 종자는 완전히 익으면 망치로 두들겨야 깨질 정도로 단단하다.

## 여름에 노란색 꽃비를 내리는 나무, 염주를 만드는 나무 꽃 달여 마시면 충혈에 효과

모감주나무에서는 보통 3,000~5,000개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데, 이 씨앗을 실로 꿰면 훌륭한 염주가 된다. 염주는 피나무 열매, 무환자나무 열매, 울무, 수정, 산호, 향나무들로 만드는데, 모감주나무 염주는 워낙 귀한 탓에 높은 스님들의 차지였다고 한다. 모감주나무라는 이름은 보살의 높은 경지에 오른 묘감(妙勘)이라는 주지의 법명에 구슬주(珠)를 붙인 '묘감주'라는 말이 변한 것이라고 한다.

## 한방에서는 요도염·안질·간염 등에 사용

모감주나무의 씨앗은 유지성분이 풍부해 기름을 얻을 수 있는데, 이 기름은 윤활유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비누 대용품으로 이용할 수 있다. 모감주나무의 꽃과 잎은 염료로 이용하기도 한다. 꽃의 경우 난화(鸚花)라 해서 약용한다. 한방에서는 6~7월에 모감주나무 꽃을 채취해 그늘에 말려두었다가 충혈이나 요도염, 장염, 치질, 안질 등을 치료할 때 달여서 복용하고 간염이나 이질, 소화불량 등에도 사용했다. 다만 결명자와 같이 혼합해서 사용하면 위험하다고 한다. 잎에는 몰식자산 메틸에스테르가 함유돼 다종류의 세균이나 진균에 대해 억제작용을 한다. 모감주나무와 같은 희귀식물의 경우 미래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존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된다. 특히 인류가 식량으로 이용하거나 의약품, 공산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 가치를 눈여겨봐야 한다. 지난날에 우리가 전혀 쓸모없다고 하찮게 생각하던 식물의 종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당수 신약의 경우 식물에서 추출한 물질로 얻어지고 있으며, 새로운 식량자원을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에서 얻기도 한다. 이렇듯 활용도가 큰 희귀자원을 우리만이 소유하고 있다면, 그 가치는 더욱 높아지게 마련이다. 자원의 보호가 결국 우리 자신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㉞

